

## - 제2기 일자리위원회 -

# 일자리 복지분과 제4차 회의결과

## 「일자리 복지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보고

제안의제 검토보고 및 종합논의 등 「일자리 복지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에 따른 결과 보고사항임

### □ 회의 개요

- (일시/방식) '21. 9. 8.(목) 15:00~16:00 / Zoom 화상회의
- (참 석 자) 총 16명
  - 위원(13) : 김○○, 김○○, 윤○○, 김○○, 손○○, 오○○, 이○○, 임○○, 장○○, 정○○, 최○○, 안○○, 이○○
  - 시(3) : 일자리경제과장(전유도),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생활지원팀장(최윤선),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팀 주무관(이지현)
- (주요내용)
  - 제안의제 검토보고 및 구체화 등 논의
  - \* (의제명) ①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보육 일자리 창출」  
② 「다문화배경 기업전문가 양성 사업」

### □ 주요 논의내용

#### ①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보육 일자리 창출」

#####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보육 일자리 창출」 현황》

- (제안배경) H 및 F-4비자를 갖고 가족들과 동반 입국한 자녀들이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작년에 보육 보조교사로 양성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취업 실적이 저조함.
- (제안내용) 보육 보조교사 채용, 보육비 지원, 보육 시설 신설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 의제 부서검토 및 종합토론 >

- 이 사업은 현재 시정협치형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정되어 있음. 현행 법령상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지만 외국인 주민 자녀의 교육 격차 발생 및 사회 부적응 초래로 인해 가족다문화과에서 보육 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 주민참여 예산 시민 투표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내년 추진여부가 결정 됨. 따라서 관계 기관 등에 집중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50명씩 100명 총 3억 4천만 원임. 시행 주체는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 사업 내용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 아동센터 수준으로 할 예정. 외국인 주민 급식이나 자녀에 대한 돌봄 급식 지급 및 언어·문화 학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최윤선 외국인생활지원팀장)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이 된다면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성격이 다름. 따라서 기관 선정을 다시 고려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손○○ 위원)

↳ 지난 회의 때 논의되었던 의제는 보육 보조교사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음.(오○○ 위원)

-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임.(이○○ 위원)
- TOPIK(한국어 능력 시험) 5급 내지 6급 정도는 되어야 전문가다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듯(김○○ 위원장)
-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손○○ 위원)
- 지역 문화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녀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더라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위원)

## 2 「다문화배경 기업 전문가 양성 사업」

### 《「다문화배경 기업전문가 양성 사업」 현황》

- (제안배경) 이중 언어의 장점을 갖고 있는 다문화 2세들이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안내용) 다문화 2세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번역 등의 능력을 갖춘 지역 전문가로 양성

## < 의제 부서검토 및 종합토론 >

- 현재 다문화 가족의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합적 취업 지원 체계 모형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 중. 타시도 사례 조사와 사업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한 이후 도입과 적용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토록 하겠음.

현재 가족다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으로 원어민 강사 양성 사업, 통번역 활동가 양성 파견 사업, 이중 언어 강사 양성 사업 등 다문화 가족의 이중 언어를 활용한 직업 훈련 과정 총 3개 과정이 있음. (이지현 주무관)

↳ 본 의제는 결혼 이민자보다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나 청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음.(김○○ 부위원장)

⇒ 결혼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포괄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신청자는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음. (이지현 주무관)

↳ 대상을 청소년 및 청년으로 구체화하고 산업과 기업의 전문가를 매칭시키거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획을 기업이 제안하도록 하여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임○○ 위원)

- 어떤 자원을 가진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타겟팅 필요. 이 과정에서 산업체 수요 조사도 반드시 동반되어 기업 맞춤형의 인력 양성 과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함.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 훈련 과정을 기본 과정/심화 과정으로 나눠 구성하는 방안 및 기업 대상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 지원 방안 제시(김○○ 위원)

## □ 회의 결과

- 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상정 안건 결정
  -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보육 일자리 창출」
  - 「다문화배경 기업 전문가 양성 사업」

## □ 향후 계획

- 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개최 : '21. 10. 08.